

중장기 세계건설시장 및 '08년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 이 복 남

I. 세계 건설시장 개황

II. 해외건설시장 증감에 미치는 요소와 영향

III. 중장기 및 '08년 해외건설시장 전망

IV. 2008년 한국건설의 해외건설 수주 전망

V. 맺음말

< 차 례 >

| | |
|--|----|
| I. 세계 건설시장 개황 | 1 |
| 1. 세계건설시장 개황 | 1 |
| 2. 해외건설시장 개황 | 2 |
| 3.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개황 | 3 |
| II. 해외건설시장 증감에 미치는 요소와 영향 | 5 |
| 1. 유가와 해외건설시장 | 5 |
| 2. 유가와 상품 및 지역별 시장 증감 관계 | 9 |
| 3. 내수 시장과 해외시장 관계 | 11 |
| III. 중장기 및 '08년 해외건설시장 전망 | 12 |
| 1. 세계경제와 건설시장의 중장기 증감 추세 | 12 |
| 2. 세계건설시장의 중기 전망 | 15 |
| 3. 세계 및 해외건설시장 '08년 전망 | 17 |
| 4. 국내기업 주력시장의 '08년 전망 | 18 |
| 5. 한국건설의 '08년도 해외시장전망에 대한 소결 | 21 |
| IV. 2008년 한국건설의 해외건설 수주 전망 | 22 |
| 1. 전망의 배경 | 22 |
| 2. 한국건설의 해외수주액을 좌우하는 국내외 변수 시나리오 | 23 |
| 3. '08년 한국건설의 해외시장 수주 전망 | 26 |
| V. 맺음말 | 29 |

I. 세계 건설시장 개황

1. 세계건설시장 개황

연 5~6% 정도 성장세는 유지 될 전망이 우세

- 한 해 동안 투자되는 세계건설시장의 총 규모는 '07년 1월 가격 기준으로 약 4조5천억 달러로 추산 됨(자료 공급 : Asia Construct, Euroconstruct, and national statistics).
- 권역별 세계 최대 시장은 유럽지역으로 전 세계시장 규모의 32% 정도에 버금되고 있음. 유럽연합시장에 이어 북미권 시장의 규모는 약 30%로 시장 규모면에서는 선진국의 건설시장이 전 세계시장의 과반수를 훨씬 넘기고 있는 실정임.
- 세계시장 전망에 대한 전문기관인 'global insight'사나 혹은 미국의 건설전문 컨설팅기관인 'FMI', 그리고 건설전문잡지인 'enr'에 따르면 전 세계건설시장의 규모는 연 평균 5~6%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임.
- 세계건설시장의 규모의 증가가 지속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한 것은 국내기업들에게도 해외건설시장이 당분간 기회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음.
- 세계시장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과 별개로 국제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시장이 국내기업들에게 큰 의미가 있음.
- 세계건설시장의 성장세 유지를 전망하는 배경은 다양한 기관들의 전망이 대체적으로 상승세 유지 쪽에 무게를 두는 것 외에도 세계 경제는 물론 정치적 안정세가 당분간 유지 될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임.
- 산유국은 물론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신흥개발국들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는 물론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산업단지화 도시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가 시간이 갈수록 경쟁적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임.
- 중동지역의 경우 고유가로 인해 벌어들인 달러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석유연관이 아닌 도시 연관시설에 집중투자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은 물론 전 세계 글로벌기업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을 제공하고 있음.

- 과거 10년을 돌이켜 보면 중동지역의 경우 석유류를 포함한 상품수출 증가가 연간 50%를 넘나 들 정도로 등락폭이 컸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등락폭이 10% 이내로 좁아지고 또 2010년 이후부터는 약 5% 내외로 안정세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Session 1 : World Construction Outlook, Global Insight, '07.9.26).
- 세계 정치 및 경제 안정은 정부는 물론 민간투자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미뤄왔던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평가임.
- '90년대 말에 닥친 외환위기는 물론 아시아권의 국가재정위기가 '02년을 기점으로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는 효과도 세계건설시장 성장세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판단임.

2. 해외건설시장 개황

해외건설시장은 세계건설시장의 약 10%인 4,500억 달러로 추정

- 한 해 동안 전 세계건설산업에 투자되는 규모는 정확하고 또 공인된 자료는 없음. 그러나 시장 전망기관이나 국제적인 연구기관에서 추정 가치는 연간 4.6조 달러 전후로 보고 있음. 이 중에서 국제입찰로 진행되어 자국 내 기업이 아닌 외국 국적기업에 의해 계약되는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 규모의 약 10%내외인 4,500억달러로 인식되고 있는 정도임.
- 지역별 시장 규모는 '06년 현재 기준(Global Insight 자료, 2007.9.26)으로 아시아권이 37%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서유럽시장이 28% 전후, 그리고 북미지역이 23% 수준임.
- 한국건설기업들의 주력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은 전 세계건설시장의 약 4% 내외로 남미지역의 5%보다 다소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비록 중동지역의 절대 시장크기는 작지만 해외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전체 해외건설시장의 20% 내외 임)는 이들 지역에는 건설 수행역량을 제대로 갖춘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 해 약 4,500억 달러로 추정되는 해외건설시장 중 세계 225대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됨.
 - 해외건설시장은 세계 모든 건설기업들의 관심사항이기는 하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극히 소수기업들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해외건설시장의 쏠림 현상은 무한 경쟁에 의한 것으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주양극화 심화 우려는 정부나 혹은 제도가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여력보다 해외건설시장에서 무한 경쟁이 지배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는 한계가 따름.
 - 전체 해외건설시장의 경쟁력을 지배하는 그룹은 국가를 대표하는 몇 몇 기업들이 지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들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을 국가에서 선택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연구진의 판단임.

3.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개황

해외시장 진출 42년만에 300억달러 수주액 돌파

- 한국 국적 기업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07년 한 해 수주한 금액은 397억 8천8백만 달러에 이릅니다.
 - '05년 약 109억 달러를 기록한 후 '06년 165억 달러 등을 포함하여 '07년도에는 398억 달러에 이르기 까지 수주액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한국건설기업들의 수주액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 국내기업들의 지역별 수주액 비중은 중동지역에서 57.3%를 기록하여 아시아권의 32.3%보다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기업들이 중동지역에서 수주액 비중이 높은 이유는 플랜트설비 비중이 63.4%(건교부 보도자료, 2007.12.31 자)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 국내 기업들이 수주액 급증의 원인 중 하나가 세계 최고기업군들이 달성하고 있는 해외시장에서의 매출액에 버금가는 수주액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판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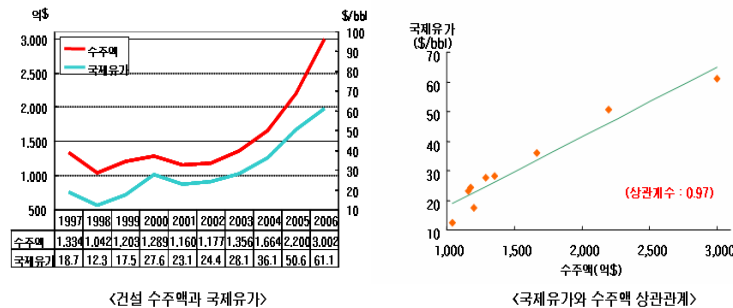
- '07년 현재 단일기업으로 수주액이 30억달러를 넘기 기업이 5개사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 290개사 중 1.7%에 불과하지만 국내기업들의 해외 수주액 중 비중은 약 50%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1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기업도 5개사로 15억 달러 이상 수주액을 합하면 10개사 약 288억 달러로 국내 전체 수주액의 72%를 넘기고 있음은 해외건설시장의 경쟁 가능한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수는 76개국으로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II. 해외건설시장 증감에 미치는 요소와 영향

1. 유가와 해외건설시장

국제 원유가격이 해외건설시장의 증감을 좌우

- '07년 국내기업들이 달성한 사상 최고 수주액은 해외시장 자체 증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 했을 것이라는 추정임. 해외건설시장의 절대액 증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 원유가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그림 1] 분석에 의하면 국제유가와 해외건설시장 증감은 상관관계가 0.97로 거의 절대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02년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의 1.0에 수렴할 만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시점에서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점은 당분간 해외건설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힘을 얻고 있음.



[그림 1] 국제유가와 해외건설시장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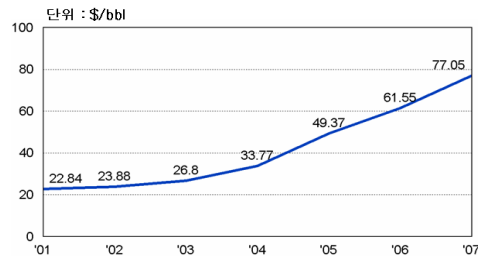
- 유가 상승이 해외건설시장의 성장세를 좌우 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임.
 - '01년도부터 '07년도까지 두바이산 원유가격 기준으로 264.5%¹⁾가 증가했음.
 - 과거 6년간 통계를 보면 유가가 1% 상승 시 해외시장 증가는 1.8%로 증가하고 있음. 국제 유가 1달러 상승은 해외시장은 846백만 달러 정도가 상승함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은 플랜트상품군의 상승률을 높일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중동시장의 성장세는 해외시장 전체 상관관계보다 다소 낮은 0.91을 보이고 있음.
 - 국제 유가 상승이 특정지역의 해외건설시장 성장세에 치우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이유로 해석 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임.

'08년 국제유가는 급등보다 완만한 상승세 유지 예상

- '08년 1월 3일 이후 사상 처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음. 현물거래가격이 비록 서부텍사스 중질유 기준으로 100달러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내놓은 '08년 유가 전망은 연중 평균 거래 가격은 배럴 당 85달러 수준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함.
 - 전문기관들의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림 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연 평균 48%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미국의 JP모건은 '07년 11월 9일 발표한 유가보고서에 의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은 하면서도 일시적 현상에 거치고 '08년도 평균 가격은 80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 세계 최대 투자은행에 속하는 골드만삭스의 경우 '08년 1월초에 나타나고 있는 유가 100달러 진입 시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통상적인 가격으로 조만간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골드만삭스의 경우 '08년 평균 유가를 배럴당 95달러에서 최고 105달러까지 전망하고 있으며 최저 가격도 80달러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1) 한국석유공사 및 British Petroleum(BP), Platt's Oilgram Price의 통계 자료 인용. 국제유가는 연중 배럴 당 평균 유가임. 해외건설시장의 크기는 '98년 8월 3째주 발행분에서 발췌한 것으로 '07년까지 과거 10년간 발행분에서 추출한 것임.

- 국내 경제연구원²⁾에 의하면 '08년도 평균 국제 유가는 최대 85달러로 전망하고 있음. 동 연구소에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오히려 55달러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08년 유가 전망은 대체적으로 최근 3년 동안(그림 2 참조) 급등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가 급등 현상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08년 유가 전망 값에도 불확실성은 남아 있음. 다만 최근의 유가 급등이 수급 문제에서 비롯되기보다 걸프지역의 정치·경제 불안 요소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상기 할 필요가 있음.
- 중동지역의 정치 및 경제 급변화 가능성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측³⁾됨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발생했던 예측 불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음.



[그림 2] 최근 7년간 두바이산 국제유가 변동

산유국은 고유가로 벌어들인 달러를 성장동력 개발에 재투자...

- 원유 판매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인 중동국가들은 과거에 주로 소비재 구입에 상당한 지출을 했음. 그러나 최근에는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다각화에 주력하고 있음. 따라서 유가 급등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소비 확대 정책에서 장기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플랜트설비나 혹은 도시기반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전략이 변하고 있음⁴⁾.

2)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국제유가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7.9.18 및 유가 급등의 원인과 향후 전망(CEO Information 제632호), 삼성경제연구소, 2007.12.5

3) From the Richest City in the World to Countries Ravaged by War: What's Happening in the Middle East?, Global Insight, 26 September 2007

4) 중동 오일머니 활용방안(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6.4

- 국내 건설기업들의 주력 시장인 걸프연안 6개국이 '0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달러는 무려 3,270억 달러로 세계석유수출기구(OPEC) 전체 원유 수출액의 69.1%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임.
- 현재 중동지역 국가들의 국가경제 성장 전략은 「원유수출 확대 → 재정수입 증대 → 재정지출 확대 → 내수 활성화(소비와 투자 증가) → 경제성장률 상승」의 패턴을 따르고 있음.

- 성장기반 구축에는 생산시설과 도로 및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등에 동시 투자가 일어나고 있음.
 - 원유를 주력 수출 하던 패턴에서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플랜트, 원유를 가공하는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에 박차를 가했던 게 국내기업들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함. 이는 [그림 1]에서 나타난 해외전체 시장의 상관계수가 0.97임에 비해 중동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0.91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중동국가들은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항만, 공항, 도시 및 주택 등 사회간접시설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음.
 - 국내 기업들에게는 플랜트시장이 우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상품별 시장의 성장세는 플랜트 상품군 뿐만 아니라 토목 및 건축 상품군에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두바이나 카타르, 혹은 사우디 등에서 신도시와 주택 혹은 호텔과 컨벤션센터, 그리고 관광시설 개발 등에 투자되는 막대한 달러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자 패턴으로 국내기업들은 새로운 상품 시장에 도전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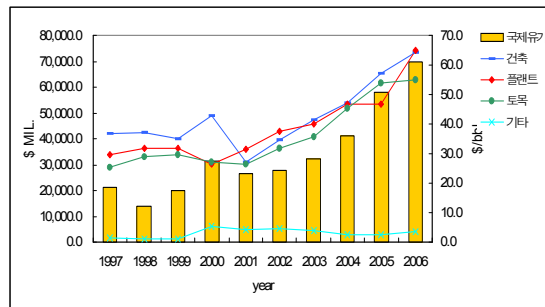
- 중동지역의 건설시장은 국내기업들에게는 당분간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동지역 국가들이 발주하는 플랜트 시장이 전체 플랜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에게는 전체 해외건설시장의 과반수를 넘긴 약 57%⁵⁾인 점은 해당지역 국가들이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춘 건설전문기업들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중동지역에서 발주되는 사회간접시설과 주택 및 건축물 등도 상당한 물량이 국제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됨.

5) 건교부 보도자료('07년 12월 31일자 중 별첨 2 참조)

2. 유가와 상품 및 지역별 시장 증감 관계

유가 상승이 상품군별 시장 성장세를 고르게 이끌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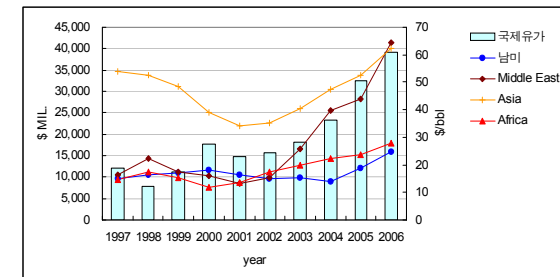
- 비록 국내기업들의 '07년도에 달성한 398억 달러 중 플랜트건설이 6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유가 상승으로 상품군별 시장 증가는 토목과 건축, 플랜트 등 3대 상품군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
 - 해외건설 시장 자체는 3대 상품군별 고르게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독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수주액은 유가 증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부문은 [그림 3] 과 같이 플랜트 상품군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실제 유가와 상품군별 상관관계는 과거 10년간을 비교해보면 토목상품군이 0.93으로 가장 높고, 건축상품군이 0.91인 반면 플랜트상품군은 가장 낮은 0.89로 나타나고 있음.
 - 국내기업들이 플랜트상품군에 치중한 이유는 아무래도 중동지역 국가라는 지역적 특성에 기인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함. 즉, 시장을 소화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해당국가에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국내업체들이 달성한 상품군별 수주액과의 상관관계는 건축상품군이 0.3, 토목상품군은 오히려 떨어지는 -0.21, 그리고 플랜트상품군의 상관계수는 0.12로 유가와 한국기업들의 상품군별 수주액 증감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임.



[그림 3] 국제유가와 상품군별 상관관계

중동과 아프리카지역 시장이 유가와 높은 상관관계

- 원유 수출이 국가 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일수록 해외건설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개연성과 실제 분석 결과도 상당한 동조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유가와 해외시장 전체 액수의 증감과의 상관관계가 0.97(그림 1 참조)인 것과 마찬가지로 중동지역의 상관관계도는 0.91로 조사되었고 아프리카지역의 경우는 0.83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경우 상관계수가 0.46으로 나타나 최근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권 지역 국가들의 해외 발주액 증가는 유가가 아닌 다른 경제적인 요소가 작용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함.
 - [그림 4] 에서 보면 아시아권 및 중동권 지역 모두가 유가와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동권의 시장 부침이 유가와 연동되는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내기업들의 주력 시장인 중동지역 시장과 유가의 상관관계 역시 [그림 4] 에서 가장 높은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아시아권이나 남미지역의 경우는 [그림 4] 에서처럼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 기업들의 아시아권 지역 수주비중이 '06년 24.5%에서 '07년 약 32%로 비중이 높아진 이유에는 금값기준으로 약 3.2배로 증가하여 국내기업들의 해외권역별 시장 증가세를 단연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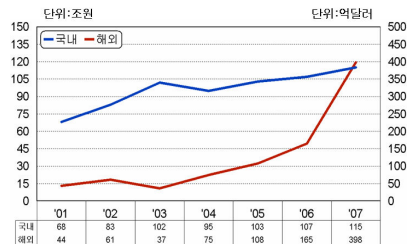


[그림 4] 국제유가와 권역별 시장 상관관계

3. 내수 시장과 해외시장 관계

내수시장과 해외건설시장이 동반 상승세로 가는 추세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시장이 축소되게 되면 기업들은 대체 시장 개발을 위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은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견해는 [그림 5] 7에서 보면 적어도 '03년도까지는 일치하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04년을 기점으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통상적인 인식과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음.
 - 해외시장에 기 진입해 있는 기업들은 해외시장을 국내 시장의 대체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해외시장을 경영전략의 포트폴리오로 보는 경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기업 중 해외건설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경우는 국내 시장 축소에 대비한 대체시장을 찾기 위한 경영전략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관점과 일치하는 것임.
 - 오랜 기간 동안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시장 포트폴리오 전략과 함께 국내시장의 투자액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기업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주액의 절대 크기를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배경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신규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건설시장을 국내 시장 축소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성장세 유지보다는 생존을 위한 최소 수주액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경우 해외시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됨.



[그림 5] 국내 수주액과 해외 수주액 비교

7) 통계로 보는 한국건설 60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년 11월 및 www.icak.or.kr에서 발췌

Ⅲ. 중장기 및 '08년 해외건설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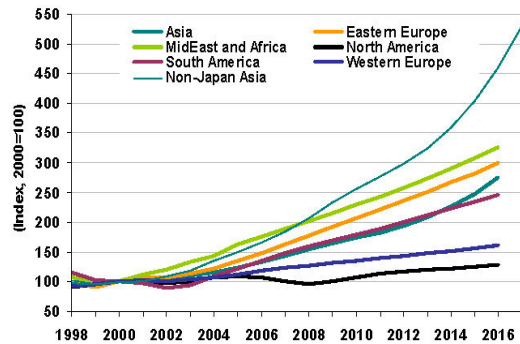
1. 세계경제와 건설시장의 중장기 증감 추세

선진국의 경제침체 불구 세계건설시장은 증가세 유지

-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은 세계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은 '08년 상반기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이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경제 조정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권의 경제는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임.
 - 국제적인 경제전망 기관인 Global Insight사는 '07년 9월26일자 웹세미나⁸⁾를 통해 세계 경제 동향을 전망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09년까지는 선진국보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및 중동과 아프리카지역 등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내총생산액(GDP)은 아시아권은 평균 8%수준,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권 국가에서는 6%대 성장세를 전망함.
 - 아시아권과 중동, 아프리카권의 성장 전망과 달리 미국이 포함된 북미경제권(NAFTA), 서유럽권과 일본은 약 2% 내외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그러나 서유럽과 북미경제권을 제외한 동유럽과 남미권 지역들은 아시아와 중동지역 경제성장의 중간 값인 5~6%대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음.
- 경제성장세는 당연히 사회간접시설을 포함한 도시와 주택 등에 투자가 확대 될 것이라는 예측임. 따라서 세계권역별 경제성장성 전망은 해당지역권 국가들의 건설시장 성장세와 직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
 - Global Insight사는 '07년 9월26일 웹세미나에서 세계경제전망은 '09년도까지 했지만 세계건설시장의 중장기 전망은 2016년도까지 함.
 - 세계건설시장은 2016년도까지 2000년도 기준(100)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5.5배까지 성장 할 것이라는 전망임(그림 6참조).

8) Fourth Annual Construction Web Event : A region-by-region view of residential, nonresidential, and infrastructure spending, Session I: WORLD CONSTRUCTION OUTLOOK(Setting the Stages: World Economic Environment, Global Insight, 26 September 2007

-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권에서는 [그림 6] 과 같이 약 3.3배 정도 증가하며 동유럽권 지역은 약 3배 성장세로 전망됨. 그러나 북미권 지역은 1.3배 정도, 그리고 서유럽지역 역시 1.6배 정도 등 미미한 증가에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일본이 포함된 아시아권 지역의 경우는 성장세가 약 2.7배 정도로 일본의 건설시장은 2000년도 대비 줄어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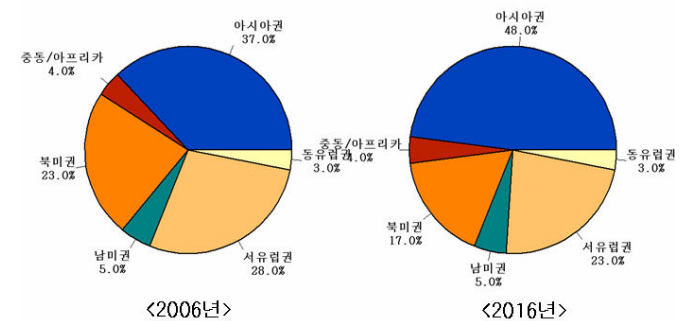
[그림 6] 세계 권역별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향후 10년은 아시아지역이 세계건설시장을 주도

-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은 '07년 1월 포럼을 통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현재의 미국과 유럽 중심에서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권으로 힘의 이동이 필연적임을 강조함.
- 다보스포럼은 경제는 미국·유럽중심에서 중국·인도 등 소위 'BRICs'권으로 이동됨을 전망
- 또한 힘의 이동도 불가피하게 생산자·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소비자 중심으로 옮겨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
- 건설산업의 생산구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부문의 전망으로 완성상품제조업 중심에서 힘이 개별부품제조업 중심으로 힘의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종합건설업체들의 역량이 지금까지의 절대적인 생산과 관리 역량보다 개별 상품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화된 기업들과의 역할 분담이 불가피해 질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9) 다보스 리포트, 힘의 이동, 매일경제신문사, 2007년 3월

-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는 또 다른 경제전문지(한국경제신문)가 발행한 '한국보고서10'에서 한국경제는 하루 빨리 답습과 복제(copy) 경제에서 창조(creative) 경제로 넘어가야 함을 강조. 또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하버드대학의 마이클포터 교수 역시 2006년 9월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copy 경제는 끝났다. 빨리 creative 경제로 진입해야 한다.'로 창조 경제를 강조함.
-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전략도 혁신적으로 변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변화에 대한 대응은 여유를 가졌을 때 하는 게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임.
- 경제 시장의 중심 이동은 필연적으로 전체 세계건설 시장의 비중, 즉 파이의 크기도 변화됨을 의미함.
- Global Insight의 세계경제 전망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림 7]에서와 같이 세계건설시장의 비중 변화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예고함.
- [그림 6] 에서처럼 세계건설시장 10년 전망에서와 같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의 급성장세는 결과적으로 [그림 7] 과 같이 아시아권지역의 시장점유비를 '06년 37%에서 '16년에는 48%로 무려 11%가 높아짐을 의미함.
- 북미권을 포함한 서유럽권 국가들의 건설시장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한 점은 이들 국가에 속한 글로벌기업들이 해외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위협 요소로 다가 올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음을 주시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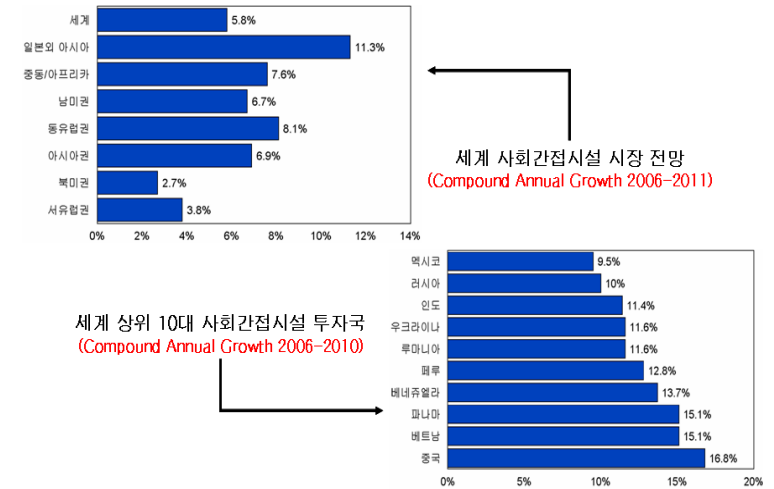
[그림 7] 세계건설시장의 점유비 변화 전망

10) IBM 한국보고서, IBM 지음(한국경제신문사 펴냄), 2007.5

2. 세계건설시장의 중기 전망¹¹⁾

향후 5년간 세계건설시장은 높은 성장세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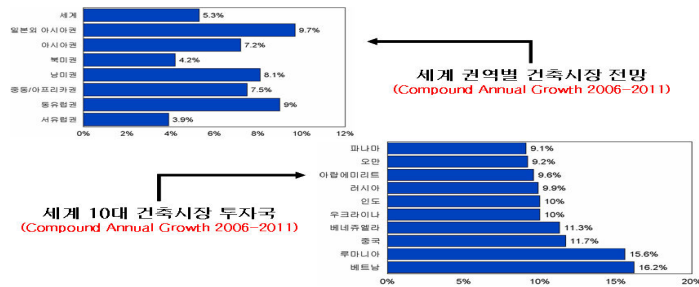
- 세계건설시장은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임. 다만 권역별 및 상품별 차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지역별 부침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은 5%로 내외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도로나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시장은 석유나 가스 혹은 지하광물들을 보유한 국가들이 개도국이나 선진국들에 비해 건설산업부문에 투자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 사회간접시설 건설시장의 '11년도까지 가장 큰 성장세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동유럽 및 중동·아프리카지역국가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예측되고 있었던 사항임.
 - 국내기업들이 플랜트시장에 치중하고 있지만 아시아권 및 중동과 아프리카권에서 증가되고 있는 토목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성장세가 중기전망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큼.
 - 파나마와 베네수엘라 등 남미권 국가들의 성장세가 크게 돋보이지만 시장의 절대적 금액보다 투자율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도는 처짐.
 - [그림 8]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사회간접시설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상위 10개국을 보면 BRICs 국가 중 브라질을 제외한 러시아와 인도 및 중국이 포함되어 있음은 대체적인 전망과 일치하고 있음.
 - 비록 BRICs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베트남이 세계 10대 사회간접시설 투자국가에 포함되어 있음과 멕시코도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음. 특히 중국에 이어 베트남이 세계 제2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기업들에게 상당히 호재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8] 전세계 사회간접시설 투자 전망

- 사회간접시설부문을 제외한 건축부문의 시장은 [그림 9]와 같이 앞서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전통적인 건설 시장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토목과 건축에서 주거시설을 제외한 건축시장의 성장세는 동유럽과 남미권이 부상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이어 비주거용 건축시장 투자에도 아시아권 지역 국가의 시장 전망이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베트남과 중국시장은 비 주거용 건축시장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자율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사회간접시설 투자에는 세계 10대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동지역의 오만과 아랍에미리트가 10대국가에 포함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비록 비주거용 건축시장이라고 하지만 개별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도로와 도시정비 혹은 신도시 건설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함을 전제로 본다면 이들 국가권에 대한 진출 전략을 재점검 할 필요가 큼.
 - 사회간접시설이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임에 비해 개별 건축물은 공공보다 민간 발주가 주도함을 고려할 경우 특히 개별 기업의 경험과 브랜드기술이 좌우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전망함.

11) From the Richest City in the World to Countries Rvaged by War: What's Happening in the Midd le East?, Global Insight(Global Macroeconomics and Country Risk), 26 September 2007



[그림 9] 전세계 비주거용 건설시장 전망

3. 세계 및 해외건설시장 '08년 전망

세계건설시장은 경제상황에, 해외건설시장은 유가의 의해 좌우

- 세계건설시장은 미국이나 서유럽, 그리고 일본의 저성장이나 혹은 침체에도 불구하고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 상황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Global Insight사가 전망하고 있는 규모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게 될 것으로 봄.
 - 세계건설시장은 연 평균 5%~6%선의 성장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7년 4조8천억 달러에서 2008년도에는 사상 처음 5조 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함.
 - 세계건설시장의 약 10% 정도가 해외건설시장 몫으로 갈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 '08년 해외건설시장은 5천억 달러 수준에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해외건설시장은 전 세계건설시장 증감에 의한 영향보다는 유가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가와 관련된 전망치가 더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자료에 의하면 '07년도 세계평균 유가는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배럴당 77.06달러('07년 10월까지 기준)로 가정하면 '08년도 국제 유가는 최저 80달러에서 최고 105달러까지 예측이 가능하나 국내외 전문 기관들은 고유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함. 따라서 '08년도 평균 유가는 배럴당 85달러로 안정적 상승 기조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해외건설시장 역시 최저, 최고 및 평균값을 전망함.

- 유가 1% 상승은 해외건설시장을 1.8% 상승시켜 왔다는 과거 5년간의 추세를 답습 할 것이라는 가정임.
- '07년도 해외건설시장의 총량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07년도의 해외건설시장 규모가 '06년도로부터 추산된 값(약 4,500억 달러)을 이용하면 약 5,73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함.
- '07년 해외건설시장 총량인 5,735억 달러를 기준으로 국제 유가 전망값과 연동하여 산출한 '08년도의 해외건설시장은 <표 1>과 같음.
- '08년 해외건설시장은 최소 6,000억 달러를 넘기게 될 것은 확실하게 예상되지만 유가급등이 해외시장 급성장과 직결되는 과거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함.
- 과거 3년 동안 급성장한 해외건설시장으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 효과와 인건비 상승과 고급 인력은 물론 숙련기능공 부족 현상이 이미 발생되고 있어 주요 해외발주기관은 물론 국내외 글로벌기업들 역시 가격 상승과 함께 공기 내 준공이 상당한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한 예상 분석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표 1〉 국제유가와 연동된 '08년 해외건설시장 전망

| 구분 | 단위 | 최저 값 | 평균 값 | 최대 값 |
|--------|-------|-------|-------|-------|
| 국제 유가 | 달러/배럴 | 80 | 85 | 105 |
| 해외건설시장 | 억 달러 | 6,060 | 6,440 | 7,950 |

4. 국내기업 주력시장의 '08년 전망

국내기업들의 주력시장은 큰 폭의 상승세 전망

- 세계건설시장의 시장의 낙관적 전망보다 국내기업들에게는 국내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시장의 시장 성장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됨. 미국이나 서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건설투자와 시장 자체는 증가보다 물가상승수준을 밀돌만큼 저 성장성이 전망되지만 국내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 및 아시아권 국가들의 시장은 Global Insight사보다 국내기업들은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음.
 - 북미 혹은 서유럽의 경우 시장 성장성은 해당권 국가들에 있는 건설기업들의 몫이지만 중동지역이나 아시아권지역은 한국기업들이 경쟁 할 만큼 국내기업들의 역량이 높아져 있기 때문임.

- 다만 선진 국가들의 내수시장이 줄어들 경우 이들 국가에 속한 글로벌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됨으로 국내기업들에게는 경쟁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국내기업들에게 가장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권 국가들의 경우 시장 성장세가 눈에 띄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지난 '7년 11월 카타르금융센터(QFC)원장이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걸프연안 6개국의 향후 10년간 대형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산은 무려 1조 달러에 가까운 9,750억 달러 수준(<표 2> 참조)임.

〈표 2〉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의 향후 10년 초대형프로젝트 규모

〈단위:10억달러〉

| 국가 | 인프라/부동산 | 관광 | 에너지 | 전기·가스·상하수도 | 항공 | 기타 | 합계 |
|--------|---------|-----|-----|------------|----|----|-----|
| 아랍에미리트 | 141 | 35 | 22 | 10 | 10 | - | 218 |
| 카타르 | 13 | 17 | 75 | 3 | 15 | 15 | 138 |
| 사우디 | 216 | 27 | 121 | 102 | - | - | 466 |
| 쿠웨이트 | 4 | - | 23 | 4 | 3 | 36 | 70 |
| 오만 | 3 | 16 | 1 | 1 | - | 7 | 28 |
| 바레인 | 3 | 8 | 1 | 1 | - | 10 | 23 |
| 전체 | 380 | 103 | 243 | 121 | 60 | 68 | 975 |

- 카타르금융센터 원장이 발표한 10년간의 투자계획에 포함된 전체액수도 중요하지만 국내업체들이 파악하고 있는 이들 지역에 속한 개별국가들이 발표하고 있는 신도시 및 관광단지 개발 등도 막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주요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두바이랜드개발은 2010년까지 600억 달러, 사우디 킹 압둘라 이코노믹시티에 1,200억 달러, 쿠웨이트의 살크시티 860억 달러, 사우디의 압둘아아지즈 빈무사이드 왕자의 이코노믹시티에 53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야스섬 개발에 390억 달러 등 걸프연안국 통계에서 포함되었거나 혹은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추가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중동지역국가들은 산업의 다각화, 사회간접시설의 현대화, 석유대체산업으로서의 관광도시 혹은 금융도시개발 등 부동산시장의 활황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시장임.

- 중국은 시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에게는 그 다지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중국은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원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상임. 이런 면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부문에 경쟁력을 지닌 국내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 부동산 및 사회간접시설은 중국이 무역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소화시킬 가능성이 큼. 따라서 중국시장은 제3국가에는 매력적일 수 없을 것으로 전망
 - 에너지시설 중 원자력은 한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기업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07년 4월에 내놓은 '전 세계원자력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06년도보다 무려 5배까지 원자력발전량을 늘려 갈 것으로 전망
 - 국내 기업들의 경험과 기술을 선진국기업들의 원자력주기 라이선스기업들과 연합할 경우 중국시장에 상당한 승산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인도의 경우 경제성장성¹²⁾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시설투자와 에너지시설투자에는 별다른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음. 이는 경제성장의 절대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확실한 정책으로 인해 외국자본이 투자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임.
 - 인도 정부가 현재 이행중인 국가5개년 계획의 일환은 120억 달러의 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기금 부족으로 인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인도는 인구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전력 최대 수요의 약 15%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브라질의 경우 세계10대국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향후 건설해야 할 잠재력 시장에서만큼은 세계 최대시장의 한 국가임에는 틀림없음.
 - 사회간접시설이나 도시개발 및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세계 10대 건설투자국이나 시장전망국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브라질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함께 만성적인 국가부채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음.

12)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경쟁력 향상 방안 발표자료, 대한토목학회, 2007.8.23

- 만약 브라질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한다면 브라질에 매장된 막대한 가스 및 석유 등을 채굴하는 설비투자, 다음으로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 부문일 것으로 전망
- 칠레 정부가 도로와 철도에 상당한 투자를 할 계획을 발표함 있음. 대부분은 도로(2010년까지 25,000km 포장계획)와 도시철도 현대화사업, 그리고 남미횡단철도 등과 같이 교통시설부문임. 그러나 칠레 정부의 재정여력 부족은 계획 수립은 정부가 하지만 실제 추진은 외국자본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5. 한국건설의 '08년도 해외시장전망에 대한 소결

‘08년 해외시장은 충분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

- 국내기업들이 주력하는 해외건설시장의 '08년도 전망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크기와 성장성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시장성과 시장의 크기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몫이 되기 위한 여건은 해외에서보다 국내에서의 걸림돌이 크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해외건설시장의 물량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07년도와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과거 3년간의 해외 수주실적이 국내기업들의 내부 역량이라기보다 시장의 급성장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는 것임.
- 국내 기업들은 해외시장의 물량 증감에 대해 신경을 쓰기보다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으로 '08년도 한국기업들의 내부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판단됨.

IV. 2008년 한국건설의 해외건설 수주 전망

1. 전망의 배경

선진국의 저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건설시장은 증가세 지속

- 북미 및 서유럽권 지역 등의 저 성장성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및 중동 지역권의 활발한 경제 성장과 고유가로 인해 해외건설시장의 성장세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해외건설 시장 증가가 곧 바로 한국건설의 해외시장 수주액 확대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음. 해외 건설시장 성장은 곧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경쟁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큼.
 - 최근 3년 동안 한국건설의 해외시장 수주액 급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판단됨.
 - 한국건설이 '07년 신규 수주액 398억은 내부 역량에 의한 것보다는 해외건설시장의 급팽창 때문이라는 인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현재 한국건설의 해외시장에는 내부 역량 한계라는 당면과제로 인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

‘08년 해외건설시장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음

- '08년은 세계건설시장은 물론 해외건설시장이 동시에 성장하는 예측은 분명 국내기업들에게는 기회임에 틀림이 없음. 그러나 내부 역량 고갈이라는 문제점은 기회가 아닌 위협으로 다가 올 가능성이 큼.
 - 해외건설시장 증가는 해외건설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나 전문가 혹은 정부 정책 당국자 모두가 '08년도에는 '07년 수주 실적을 무난히 능가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지배적임.
 - 해외건설시장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 해외건설시장에 진출 해 있는 기업들은 필요한 해외전문가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함.
 - 국내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해외건설시장 전문인력 부족 현상은 국내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선진국 기업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임.

- 해외건설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미국의 건설산업 및 기업 역시 심각한 전문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음. 부족한 전문인력은 숙련기능공이나 기술자보다 고급 사업책임자(senior project manager)와 감독관(superintendent), 그리고 숙련된 견적전문가(estimator), 원가전문가(cost) 및 공정관리전문가(scheduler) 등에서 특히 심하다는 분석¹³⁾임.
- 국내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 기업들은 사업책임자급이나 혹은 기술부문별 책임자급을 제외한 기술자급이나 현장 감독관 수준의 인력은 인도와 필리핀, 혹은 터키 등 제3국 인력을 투입하는 게 보편적임. 그러나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자가 2주('07.12.5~'07.12.20) 동안 인도 현지 기술자 및 숙련기능인력 수급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도에는 인도 기술자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릴 정도로 최근의 해외시장 호황은 제3국의 전문인력 조차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임.
- '08년 한국건설은 해외건설시장에서 외부적으로는 시장 성장세로 호황국면에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존 수주액의 소화 역량 부족은 물론 신규 수주액 확대에 상당한 위기감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함.
- '07년도에 수주액 상위그룹들은 내부 역량에 집중하면서 기 수주액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신규 수주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예측은 국가건설산업 차원에서 보면 '08년 해외건설시장은 위기로 받아들여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2. 한국건설의 해외 수주액을 좌우하는 국내외 변수 시나리오

'08년 해외시장은 급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

- '08년 세계 및 해외건설시장은 절대적 금액면에서는 상당한 시장성을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외부의 시장성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될 외부 환경 변화는 시장의 급팽창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예상외로 심각해 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위험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위험 요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시장 성장 자체에 위협을 가 할 만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음.
- '04년 이후부터 해외건설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고유가 및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 안정성을 회복한 국가들의 신규 투자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 해외건설시장의 성장은 [그림 10] 과 같이 국제 통화기준인 달러가치의 하락, 이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원유판매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플랜트시설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위한 산유국들의 투자 경쟁 환경이 만들어진 시나리오 1로 해석 할 수 있음.
- 해외건설시장이 외부 변화 요인들에 의해 성장한 결과는 필연적으로 원유가격을 상승시키고 원유가격 상승은 또 다시 공산품의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강한 인플레이션 및 숙련인력 부족 현상을 가져 올 것이라는 개연성이 큼.
- 강한 인플레이션과 숙련기능공 부족 문제와 함께 원자재 구입을 어렵게 하거나 혹은 계약금액 내에서 해결 불가능할 만큼 원가 증가 및 구인·구입난 등으로 공기 준수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 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전망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예측¹⁴⁾했던 결과임. 특히 미국에서는 원가 증가 부담보다 공기지연 부담이 훨씬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했음.
- 해외건설시장의 성장세 영향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고성장세 유지도 국제 원자재가격을 급등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¹⁵⁾되고 있음. 중국 경제 성장은 막대한 에너지 수입으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것 외에 중국 내 인플레이션은 물론 국제원자재 가격지수인 CRB 현물지수를 '07년 9월까지 8개월 연속 전년기 대비 20%까지 상승시키고 있음.
- 해외플랜트 건설에 소요되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05년 이후 20%대에 육박하는 높은 인플레이션¹⁶⁾은 결과적으로 발주자에게는 신규 투자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기 수주한 계약자에게는 수익성을 극도로 악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
- 실제 미국의 글로벌기업인 플루워(Flour)사의 경우 배관자재 주문 및 제작·공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05년 최대 12주에서 '07년도에는 18주까지 무려 6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음. 이러한 예측은 기 수주된 해외건설공사를 공기 내 소화하는데 글로벌 구매 역량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함.
- [그림 10] 의 시나리오 1은 외부 환경이 만들어진 해외건설시장이 결과적으로는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보다 시장의 크기만을 키워 발주자 및 글로벌 기업 모두가 소화 불량에 걸릴 가능성을 높여 주는 예고라고 볼 수 있음.
- 시나리오 1에서 예상하는 부작용은 어느 특정한 국가나 혹은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보다 해외시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귀결 될 것임.

14) Contractors Are Scrambling in a Busy Market with Fabrication Bottlenecks, ENR, June 26,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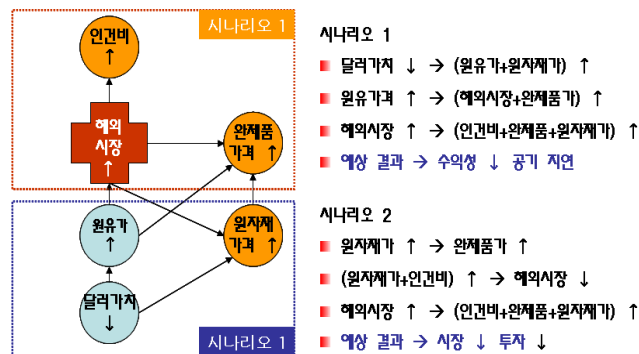
15) 중국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시사점(SERI 경제 포커스(제16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7.10.29)

16) 해외 건설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 주요 업체의 내부역량 진단(건설산업동향 2007-2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11

13) Contractor Personnel Shortages Cause Huge Sellers' Market for Top People, ENR, June 26, 2006

이 경우 기존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은 소화 여유에 따라 '08년 수주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과거 어느 때보다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신규 진입자가 경험 부족으로 손해 볼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1은 해외건설시장 진입 및 수주액 증가에 대한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것은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시장의 특성 상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전문가 보유 제약으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역량이 떨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함.



[그림 10] 해외건설시장의 내·외부 환경변화 예측

고유가 및 시장 팽창으로 신규 투자가 지연 될 가능성

- 고유가와 경제성장이 해외건설시장을 성장시킨 반면 단기간 내 급성장한 시장이 건설서비스 공급자들의 공급 역량을 고갈시키면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큼. 이로 인해 해외건설시장이 '07년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됨.
- [그림 10]에 나타난 시나리오 2는 해외건설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나타나게 될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는 숙련 기능공과 자재, 그리고 고급기술자들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키게 됨. 문제는 이들 모두가 단기간 내 급성장한 물량을 소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미국의 건설전문지인 'enr'지는 미국 내 글로벌기업들에 속한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을 통해 원유가 상승은 공급자 주도 시장(sellers' market) 상황을 만들어 가격 급등으로 발주자, 특히 원유가와 연동된 시설투자계획을 가진 발주기관들이 투자 자체를 포기하거나 혹은 연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¹⁷⁾을 내놓았음.
- 물가상승과 함께 투자비 증가는 [그림 10]의 시나리오 2와 같이 해외건설시장 위축은 물론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발주기관의 경우 사업 기간 연장까지 하거나 혹은 투자 규모를 줄이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 가능성이 높음.
- 문제는 시나리오 2와 같은 상황이 '08년도에 일어나게 되면 해외건설시장은 낙관적 전망과 달리 오히려 시장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이러한 시나리오는 필연적이겠지만 다만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08년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의 문제로 봐야 함.

3. '08년 한국건설의 해외시장 수주 전망

낙관적 전망은 사상 처음 400억 달러 대 진입

- '08년도는 해외건설시장의 크기가 '07년도에 비해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수주 여력이 충분하여 현재 수주마무리 단계에 있는 건수를 포함하여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펼 것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음.
- <표 1>에서 해외건설시장 전망에서 제시한 전체 규모가 7,950억 달러로 이중 5% 정도만 국내기업들이 수주하더라도 400억 달러 대 진입은 충분히 가능함.
- 건교부가 '07년 12월 31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전망한 400억 달러까지 진입은 시장 호황, 국내기업들의 수주 호조세 지속, 그리고 중동지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서 수주 마무리 단계에 있는 250억 달러를 감안하면 충분하다는 발표도 있었음.
- [그림 10]에서 예상한 시나리오와 달리 공급자들의 소화역량이 충분하고 또한 국제 유가가 배럴 당 85달러 선에서 머물러 해외건설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급팽창하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낙관적 전망을 하게 됨.

17) Price Escalation is Stuck in High Gear ; Rising crude prices and changes at refineries limit supplies, ENR, June 26, 2006

비관적 전망은 200억 달러 대로 떨어질 가능성

- 국내 역량을 가진 기업들의 여력 감소로 인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이나 혹은 극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 외에 새로운 수주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해외시장건설시장의 성장세도 <표 1>에서 전망한 대로 '07년도에 비해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한 전망이다.
-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발주자와의 네트워크가 강한 기업들이 기 수주한 금액을 소화시키는데도 전문인력의 부족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은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해외건설시장의 축소보다 국내 기업 내부 역량 한계로 인해 수주 자체를 기피하거나 과거와 달리 신규 수주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상임.
- 최근 3년 동안 국내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의 급증은 플랜트상품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문제는 플랜트상품군을 소화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들은 최근 2년 동안 이미 상당한 금액을 수주했기 때문에 추가 수주는 극히 선별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임.
-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들은 건수는 늘릴 수는 있어도 건당 수주액 자체는 위험부담 때문에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81년 이후 과거 3차례에 걸쳐 수주액이 급감한 사례¹⁸⁾를 감안하면 예상 가능한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국내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내부 역량에 의해 좌우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임.

'08년도 한국건설의 해외시장 수주는 300억 달러 대로 전망

- 낙관적 혹은 비관적 전망과 무관하게 현재 국내 기업들의 내부 역량과 해외건설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08년도 한국건설의 해외시장에서의 수주액은 300억 달러대에 머물 가능성이 가능 큰 것으로 예상함. 이러한 예상은 '07년 한 해 동안 신규 수주액 30억 달러를 넘긴 기업들 못지않게 국내 10대 혹은 20대 기업군에 속한 기업들이 중 해외시장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임.
- 기 진출한 기업들은 신규 수주에 여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향후를 생각하여 전략적으로 여력을 가진 국내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신규 수주액을 도울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서 가능성을 제시함.

- 건교부의 예측 및 국내 상위 기업들이 거의 계약 단계에 있는 신규 사업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 금액 외 신규로 1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신규 수주는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임.

18)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가능성 진단 및 제언(건설산업동향 2007-0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2.

V. 맺음말

외부 환경에 의한 수주 증가는 기대 난

- '07년의 수주액 급증은 물론 최근 3년간의 해외건설 수주액 증가는 내부 역량에 의한 준비된 수주라기보다 세계건설시장과 해외건설시장의 급증이 기여한바가 절대적임.
- 해외건설시장의 성장은 새로운 경쟁국과 경쟁기업들이 진입하게 되므로 국내기업들이 누렸던 혜택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해외건설시장의 성장세는 4~5년간 지속

- 해외건설시장은 향후 5년까지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해외건설시장의 성장은 국내기업들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 시장에서 국내업체들의 내부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고시키지 못하면 해외건설시장은 아무런 매력을 갖지 못하게 됨.

한국의 해외건설시장은 내부 역량에 의해 좌우

- 해외시장의 크기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역량을 제고시키지 못할 경우 선진국기업은 물론 중국이나 터키 등 제3국 기업들에 의해 시장이 잠식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외부환경에 의한 수주증가보다 내부 역량에 의한 준비된 수주로 전환해야 할 시기로 판단됨. 이점에 대해 정부와 기업 경영진들이 인식해야 할 시기로 판단됨.

해외건설은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

- 국내기업들과 과거 40년 동안 쌓아온 해외건설 네트워크와 지식, 그리고 풍부한 인적 자원 등은 해외건설시장을 한국경제에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큼.

- 한국건설이 가진 장점을 상품화시킬 경우 국내적으로는 기술자들의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외화 가득을 높일 수 있으며 세계시장에서는 한국건설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예상임.
- 스위스의 국제경영원(IMD)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30위 안팎이지만 한국건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10위권 이내에 있음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임.

해외건설시장을 국정아젠다에 포함시켜야 함

- 한국건설을 해외시장에서 브랜드화시키는 국가 전략이 성공 할 경우 한국건설은 전체 해외건설시장의 10%인 연간 600억 달러('08년 기준) 이상을 상시 수주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게 됨.
- 한국건설이 가진 잠재역량을 해외건설시장에서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정 아젠다에 포함시켜 국가 정책과 제도, 금융시스템과 건설산업 등 국가차원의 협력을 유도해 내는 리더십이 필수적 과제임.
- '07년 398억 달러 수주에 만족 할 경우 한국건설은 해외시장에서 자력에 의한 추가 성장 가능성은 거의 없음. 이와는 반대로 제3국 기업들이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한국건설의 해외시장을 잠식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한국의 해외건설시장은 시장 성장과 무관하게 시장 점유비가 후퇴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임.